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전완준 화순군수

‘잘사는 화순’ 건설 박차

전문 건설경영인 CEO에서 기초 단체장으로 변신한 전완준 화순군수는 ‘화합과 변화 속에 잘사는 화순건설’을 구현하기 위해 정해년 새해부터 발걸음이 분주하다.

전군수는 “올해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잘사는 화순 만들기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공직자들은 ‘도전정신’을, 군민들은 ‘꿈과 희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화순 동부권은 친환경 농산물생산과 ‘생태관광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전군수의 구상이다.

지금까지 상수원 보호지구로 지정돼 토지이용률이 낮았던 이서와



다. 올해는 또 농·축 특산물을 온라인상에서 생산·홍보·판매·유통망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군민소득 향상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문화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명확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내 모든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남 중시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능주고등학교와 같은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교육환경 개선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예술인과 체육인의 숙원사

생태관광테마파크 조성

북면, 동북, 남면 지역을 특산물재배 생산 기지로 만들고, 숲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 생태관광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능성 수종을 심고 소득 작물과 조경수, 관상수 재배를 통해 희망의 지역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서부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하는 계획이 구체화된다.

서부권인 화순읍 내평리 일대는 생물의와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지난해 녹지사 득감 백신생산 공장이 착공됐다. 또 전남내의 과대학 유치도 확정단계에서 경제 적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기대

되고 있다. 여기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지역 특산물의 대표 브랜드화는 전군수가 올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다. 산죽·산양삼을 브랜드

서부산단 기업유치 전력

드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10대 특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 개발로 농·축 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여야 소득 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WTO 및 한·미 FTA에 대비, 규모화 영농이 가능한 기업농과 영농조합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우수 인력 확보와 인재양성 교육에도 주력할 방침이

저소득층 자녀 지원 충실

업인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을 겸한 복합실내 문화체육관을 건립, 선진문화 창달과 군민건강 증진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다.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올 화순 군정의 핵심 사업이다.

출산을 향상을 위한 보조금과 육아교육비 지원, 외국인 여성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한약 유통지원시설도 빠른 시일 내 가시화해 우수 한약재의 유통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화순=조선기자 css@

고품질 ‘맞춤형 국화’ 나온다

농기원 특화사업단 양액재배 기술 지원 무안농가 올 200만송이 10억 수출 계획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고품질 국화 생산을 위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에 나섰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국화특화사업단 황인택 박사팀은 지난 4일부터 무안군 무안을 성안리 ‘국화 수출단지’ 시설 하우스에서 국화 토양 재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 양액(養液)재배 기술지원을 펴고 있다.

무안 국화수출단지는 지난 2002년부터 박남기(54)씨 등 6농가가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양액재배로 고품질의 국화를 생산, 일본에 수출해 오고 있다.

이번 맞춤형 기술 지원은 시설하우스 내 조명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최고급 품질의 국화 생산에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황박사 팀은 종묘를 심어 두달 정도 재배한 뒤 시설하우스 내 전등을 2주간 켜고 다시 5일간 야간에만 4시간 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라야 국화 꽃이 커지고 개화 상태가 오래 지속돼 일본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는 것.



전남도 농업기술원 황인택 박사(사진 오른쪽)가 화혜 농민들에게 맞춤형 양액재배 기술지도도를 하고 있다.

황박사는 “양액재배를 하게 되면 이어짓기(連作) 피해와 토양 오염으로 인한 병충해가 없어 고품질 국화를 연간 2.5회 생산할 수 있다”며 “앞으로 수출국화를 명품화해 재배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생산기술을 적극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 수출국화단지는 지난해 국화 40만 송이(2억 원 어치)를 일본에 수출했고, 올해 200만 송이를 수출해 10억 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



강진 참꼬막 채취 한창

청정 갯벌로 유명한 강진만에서 밑배(스키 모양의 널따란 널빤지)를 이용한 참꼬막 채취가 시작됐다. 12월부터 제맛이 들기 시작한 참꼬막은 이듬해 3월 까지 수확된다. 임금급 수리상에 올랐다는 강진만 참꼬막은 쫄깃쫄깃하고 깊은 맛이 일품으로 20kg 한통에 8만원을 호가한다.

청정 갯벌로 유명한 강진만에서 밑배(스키 모양의 널따란 널빤지)를 이용한 참꼬막 채취가 시작됐다. 12월부터 제맛이 들기 시작한 참꼬막은 이듬해 3월 까지 수확된다. 임금급 수리상에 올랐다는 강진만 참꼬막은 쫄깃쫄깃하고 깊은 맛이 일품으로 20kg 한통에 8만원을 호가한다. /연합뉴스

현대삼호重 15만t급 LNG선 건조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사장 강수현)이 첨단 고부가치산업인 LNG선(액화천연가스 운반선)에 대한 건조에 착수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3일 LNG선에 사용될 강재 절단식을 갖고 본격 건조에 돌입했다.

이번에 건조 되는 LNG선은 영국 BP사로부터 2억2천만 달러에 수주한 길이 288m, 폭 44.2m 규모의 15만5천t급으로 2008년 9월에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특히 경유와 가스연료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이중(興種)연료추진기관을 장착하는 등 현대삼호중공업의 첨단 기술력이 모두 동원돼 건조된다. /영남=김한기기자 hnkim@

영광군 ‘인터넷 전자계약제’ 1천만원이상 공사 등 대상

영광군이 지난 1일부터 ‘인터넷 전자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계약제’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입찰 공고·투찰·개찰 및 낙찰자 결정·계약 등 모든 과정을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하는 혁신적인 계약제도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인터넷 전자계약제’는 1천만원 이상 공사와 5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노숙자 썩어가는 손가락 고쳐주세요”

목포역 기거... 네티즌·시민들 “도와주자” 열기

“노숙인의 썩어가는 손가락을 고쳐 주세요” 목포역에 기거하는 한 노숙자의 손가락을 고쳐주는 네티즌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국내 한 포털사이트에 ‘이병기’라는 네티즌은 손가락이 잘려나간 노숙자의 사진과 함께 이를 도와주자는 청원의 글을 올렸으며 8일 현재 2천637명이 서명 할 정도로 열띤 반응을 얻고 있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 구랍 31일 목포에 온 이씨는 기차를 타기 위해 목포역 대합실에 앉아 있다 옆 자리 노숙인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오른 손은 엄지 손가락만 남아 있었고 왼손 또한 상처 부위에 진물이 나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 듯 했다. 이 노숙자는 동상이 걸려 오른 손가락을 잃었으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왼 손가락마저 없어질 형편이다.

네티즌들의 청원이 뜨겁게 전개되자 목포시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 /목포=이상휴기자 ish@

장흥댐 상류 농가 소득보전

郡, 31억 들여 농기계 구입·소득작물재배 지원

장흥군이 올해 수계관리기금 등 31억 원을 투입, 각종 개발행위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흥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장흥군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실질 소득증대를 위해 농기계구입

과 친환경 퇴비사 신축, 소득작물재배 등 43개 지원사업을 펼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내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과 학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가구당 85만원씩 10억 원을 지원하고 물관대 매금 2억5천만원도 규제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사용할 방침이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이들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증진사업과 소득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지원키로 했다.

또한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 자발적인 수질보전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 사업을 내실있게 펼칠 방침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Advertisement for 'Rajirong' (라지롱) featuring a woman and text about a service or product.

Advertisement for 'Bulgidong' (불기동) featuring a large teapot and text about a service or product.

Advertisement for 'Hanwoo Samhyeongje' (한우삼형제) featuring a building and text about a restaurant or service.